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을

메리 트레이시 수녀

이 글은 메리 트레이시 수녀님께서 한국을 떠나시면서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에 보내오신 글입니다.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에서 보낸 여러 해 동안 일행이 되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는 보다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여러 해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심려와 고난 중에서 또는 위기에 처하거나 투병 중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만나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으로 신뢰받고, 한 자리에 앉아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영예가 되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더욱 인간다운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그토록 가까이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는 돌보는 봉사, 함께 고통을 나누는 봉사, 다른 환자의 고통을(적어도 우리는) 자신이 아픈 환자와 같다는 연민과 친근함, 동료애와 창조적인 정신과 위대한 인류애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만약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도 안한 두 아이와 고통 중에 자주 토하며 죽어 가는 남편 사이에 있다면 어떠하였겠습니까? 제가 남편이 죽은 후에 이어갈 생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 가톨릭 신자와 결혼한 탓으로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한다면……? 김치 담그고, 쇼핑하고, 밖에 나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호스피스 일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한 “복음”이 알려짐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환자 곁을 등지고 지식과 정보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각 호스피스 기관, 우리 지역, 우리의 작은 모임들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우도록 하십시오.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환자와 가족을 만나 보시고, 단계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십시오. 방문 후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서로의 격려, 위로는 큰 힘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집 근처에 지역별 호스피스를 만드십시오.

훌륭한 봉사와 헌신, 꾸준함과 신뢰를 가지고 종교를 초월하여 일하십시오.

신앙이 없는 곳에도 가나요?

주님은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의료진들과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호스피스 기관들을 무시하지 말고, 호스피스 일꾼을 위해 의사, 간호사들을 양성하셔야 전문인이 됩니다. 기꺼이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그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충직함으로 사십시오.

그분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더욱 친밀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성체조배 안에서 늘 감사합니다.

2000년 1월 초, 모현 호스피스